ELIO’S LITTLE DISCOVERIES

The Night of the Missing Moon

달이 사라진 밤 · 처음과 끝의 하늘 비교



11세 · Day 035 · 함께 읽기 · 6장면



After supper, Elio ran to the garden to see the moon. He looked up at the sky between the roofs and the apple tree. The sky was dark, but there was no round white moon.



“Mum!” he called. “The moon is gone!” Mum came out with a lamp and looked up too. Clouds moved slowly across the sky, but Elio was sure the moon had been there before supper.



“Perhaps it rolled behind the hill,” said Bori, who had come to the gate. “Or someone took it.” Elio did not like either idea. The moon had never needed anyone to look after it.



Mum walked with them to the end of the lane. Bori carried the lamp that Mum had brought out. Elio carried a small basket, in case the moon was lost and needed carrying home.



First they looked behind the hedge, but only wet leaves shone back. Then they looked under the little bridge, where the stream made a soft, dark sound.



“The moon is not here,” said Bori. Her lamp made a small yellow circle on the stones. Beyond it, the whole garden was closed and quiet.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밤 마당과 빈 하늘을 함께 보고, 달이 안 보이는 밤에 무엇을 생각했을지 이야기해 봐요. 밤에는 어른과 함께 집 앞마당에서 하늘을 본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해요.

함께 읽을 때

장마다 한 번씩 멈춰 엘리오가 무엇을 짐작했는지, 실제로 무엇이 보였는지 나누어 봐요. 등불을 든 보리와 바구니를 든 엘리오의 손을 눈여겨보고, 두 아이 곁에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도 짚어요.

생각 나누기

달은 정말 사라졌나요? 달이 다시 보인 까닭을 그림과 원문에서 찾아봐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엄마의 설명도 함께 읽어요.

생활에서

맑은 밤에 보호자와 함께 집 앞마당에서 달을 찾아보고, 구름이 지나가면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 함께 관찰해요. 달의 모양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며, 이 이야기는 구름에 가려진 밤 하나를 담았다는 점을 짚어 줘요.

구름과 달을 찾아가는 긴 함께 읽기 원고 초안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읽기나 천문 학습 평가가 아니에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